

참 믿음과 거짓 믿음

본문: 요한복음 2:23-3:2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I. 가짜 믿음을 거부하신 예수님

우리는 본문에 두 가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의 영광이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지 않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 받지 못한 믿음이다. 전지의 예수님은 구원 받은 자의 구원의 믿음과 구원이 없는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

요한복음 1:12을 기억하라. “그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12).“ 이 때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다. 그리고 여기 2:23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여기서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것은 그들의 이름을 아는 양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대하는 것과 아주 다르다. 예수님이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12 절에서 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믿음처럼 보인다고 모든 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왜 이 문제를 특별히 지적하고자 한 것인가? 앞에서 말한 대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잘 못 된 믿음 갖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하

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심판이 임했을 때야 자기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1. 니고데모의 믿음

니고데모는 아마도 2:23절에 나온 사람들의 대표자인 것 같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믿는 자이지만 그들이 믿은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니다. 성경의 장별로 나눈 것은 나중에 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 하라. 각장들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비록 장이 다르지만 2:25절부터 3:2절까지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25절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말로 끝난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말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3:1-2)

이것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종류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의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다. 이것이 모슬람이 믿는 믿음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아주 높은 견해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아주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니다. 그가 본 것은 전혀 자연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영적인 소경이었다. 그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는 오직 표적만 보았다. 그리고 그 표적이 매우 감동적이어서 자연적인 생각으로 그 표적에만 감동 되었지 그 표적이 진짜로 보여 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표적 신앙의 문제이다. 원래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아야지 그 손가락만을 보고 손가락이 예쁘니, 그 손가락에 다이나 반지가 끼었느니 그런 것만 보면 이것은 잘 못 된 것이다. 니고데모는 손가락만 보았지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진짜 구원 받을 믿음이 아니었다. 그것이 요한복음 3:1-8절에서 요한이 지적 한 것이다. 니고데모는 중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거듭 나아만 했다.

요한복음 2:23의 믿음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가 행한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믿지 않았다.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의미한 바를 모지 못했다.

2. 예수님의 형제들의 믿음

요한복음 7:3-5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믿음을 예로 들어보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5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큰 인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저자 요한은 말한다. 그들은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기적을 믿었다. 그들은 그에 대하여 흥분했다. 그리고 그는 공적으로 나가서 그가 마땅히 얻어야 할 영광을 받기를 원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요한은 불신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5:44에 답이 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한 자로 보았고 그를 통해서 큰 성공을 얻기를 원했다. 사람의 영광을 원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란 겸손이라는 것이다. 그 믿음은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이 갖는 믿음이다. 권세를 사랑하는 자들, 인기를 사랑하는 자들, 표적과 기적을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이 아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 제자들은 표적을 본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믿음이었다(11).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22).

3. 표적을 구하는 것의 위험

예수님은 기적을 구한 자들을 경고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 24:24)

만약에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따르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낙오 될 것이다.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카 후서2:9-10절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날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속임으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많은 사람들, 일종의 믿음을 가졌으나 진짜 믿음이 아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더 능력 있게 보이는 다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논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십자가를 보는가? 단지 당신은 표적과 기사에만 매혹 되어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라.

II. 예수님이 인정하신 참된 믿음

당신은 모든 사람의 영혼의 중심을 완전히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는 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유다의 생각까지도 아신다(요한복음 6:64). 그것을 아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지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알려 주시고 우리의 부패를 알려 주실 뿐 우리를 그 악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로 말마암아 형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더 이상 심판이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죄의오염으로부터 깨끗케 하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 막은 장벽을 헐어 버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만약 당신이 그와 그의 최고의 영광으로서 그의 십자가를 본다면 그리고 그를 믿는다면, 당신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는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는 영광스러운 구주이시다. 제자들은 결례로 사용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십자가를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2:11). 또한 **2:22을 보라.**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다.

우리는 이장에서 2장 전체를 살펴 보았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성전 청소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광,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신 그리스도의 전지의 영광,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았다. 또한 참 구원을 가져온 제자들의 신앙과 구원이 이

없는 잘 못 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얻고 계속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레이저 광선처럼 여러분의 영혼속에 강하게 비추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말암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 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고 은혜 충만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역사사 일어나기 위하여 성경공부와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